

제 1 회 세계성균관글백일장

소속교: Peking University 한글 성명: 장우호

전벽 위에 곳곳이 서는 나무
큰 크리튼 건물과 자동차 매연이 판리
는 도시를 벗어나 8일째 자가용 특어
를 하고 있었다. 맑을 향해 배르게 달
리고 있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풍
경들에 심취해 두 눈을 크게 떴다. 광
활한 대지와 푸른 초원이 차창 너머로
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새들이 솟아탕
같이 생긴 흰색 구름 사이로 자유히
날고 있었다. 나는 지쳐 있던 몸과 마
음이 다 치유된 느낌이 들었다.
나를 처음에는 이번 여행을 갈까 말
까 고민을 많이 했다. 인턴을 하거나
유학 준비를 열심히 하는 내 친구들에
비하여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일을 한
게 아닌가 자책하기도 했다. 그렇게 고
민한 끝에, '방학이 한 무렵에 쉬기 위해
준재하는 시간이 아깝기라고 생각하면서
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.
는 났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Peking University 한글 성명: 장우호

은 모든 시간이 은 사치였던 것 같다.
 내일에 해야 할 일, 다음 주에 완성해야
 할 과제, 내년에 준비해야 할 시험...
 무수한 일들이 내 머리속은 복잡하게
 만들고 내 걸음은 재촉한다. 그래서 내
 머리와 내 근육이 은 긴장돼 있는 상
 태였고 풀린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
 같다. 그렇게 살다가 내가 느낀 것은
 종종 찾아온 피로감과 무력감이었다. 나
 은 마치 꿈 속에서 줄을 타는 사람처럼
 공방이라도 그 줄에서 떨어질 것만 같
 았다.
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을 기분전환으
 로 남아 제대로 즐겨보기로 했다.
 한참은 그렇게 차박을 바라보던 중,
 멀리 구름 위로 우뚝 솟아있는 전벽위
 에 시선은 멈추었다. 그렇게 장엄하고
 고독해 보이는 전벽은 처음 보는 것
 같았다. 그 전벽에 가까이 다가가서야
 나는 비로소 그 전벽의 모습은 자세히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Peking University 한글 성명: 장우호

볼 수 있었다. 하늘은 저를 듯한 큰
 나무가 그 전벽 위에 딱 버티고 서
 있지 않은가. 이상하게도 전벽과 전혀
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 그 나무는 거
 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 비참하고 위태
 한 한 그 림을 완성시켰다. 내 마음 속
 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다.
 그 시퍼런 전벽 위에 어떻게 그렇게
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가?
 그 나무는 균형을 잘 잡았을 것이다.
 한 세상이었던 그 나무는 무연히 이
 전벽에 난렸을 것이다. 그리고 하늘에서
 내려준 비와 햇살 덕분에 그 꽃에 간
 신히 정착했을 것이고, 주변은 둘러싸고
 있는 바위를 헤치고 열심히 뿌리를 내
 려온 것이다. 그래서 그 나무는 꺾이지
 도 많고 푸너지지도 많았다. 그리고 전
 벽 위태로워 보이지 않고 꽃꽂이 전벽
 위에 서 있다.
 차가 이미 그 전벽과 그 나무를 뒤

제 1 회 세계성균 한글백일장

소속교: Peking University 한글 성명: 장우호

료 하고 멀리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
 나는 그 나무의 태연하고 평온한 모습
 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. 그 나무를
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은 균형
 이라고 나는 생각한다.
 인생도 똑같은 것이다. 균형은 장
 을 줄이는 것은 사람든만 지혜롭고 여유로
 운 삶은 살 수 있는 법이다. 모든 것
 이 배반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 사회에
 서는 사람든이 매 순간 순간 스트레스를
 받고 있고 전벽 뒤를 걷는 듯한 기분
 이 든다.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자기가
 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과 연정을 투입
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. 물론 치열한
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만 한 때가
 많지만 그렇게 살다가 삶의 균형을 잃
 어서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
 고려하면 더 오래오래 많은 걸어갈
 수 있도록 삶의 균형을 이루는 법을
 찾아야 할 것이다.

제 1 회 세계성균한글백일장

소속교: Peking University 한글 성명: 장우호

삶이 때로는 전벽라도 같다. 그 위에서
 댕 버티는 나무처럼 권형은 잡아야만
 한다. 여해를 물은 나는 힘껏 달렸다가
 편히 쉬는 시간 덕분에 한쪽으로만 기
 우는 삶에 다시 권형은 되찾은 것 같
 다. 그리고 밖으로도 무너질 것 같은
 순간이 찾아오면 전벽 위에 선 나무를
 삼기하며 다시 곳곳이 선 수 있는 것
 같다.